

#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

(토요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 그 사역의 일

성경: 엡 4:11-32

### I.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은 ‘그 사역의 일’이다—엡 4:12.

A.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은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과 동격이다. 이것은 그 사역의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1. 우리의 일은 다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집회들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다. 이 모든 필요한 활동들은 몸을 건축하기 위해 있다—막 16:15, 20, 엡 4:12, 16.
2.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지 않는 활동은 무엇이든 분열에 속한 일이며, 그 사역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3. 그 사역의 일은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엡 4:16.

B.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은사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사역,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역만을 가진다. 이것이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유일한 사역이다—고후 4:1, 딤후 1:12.

1. 수세기에 걸쳐 몸의 건축을 위해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공급한 모든 이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가졌는데, 이 사역들은 모두 유일한 신약 사역의 일부였다—고후 4:1, 딤후 4:5, 11.
2. 몸은 한 사역, 곧 유일한 신약 사역에 의해 건축된다—고후 4:1, 엡 4:12.
3.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일로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엡 4:12, 16.

C.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사역의 일은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직접 성취되지 않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한 성도들에 의해 성취된다—엡 4:11-12, 16.

1. 그 사역의 일은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과 온전하게 된 사람들 모두의 일이다—엡 4:11-12.
2. 은사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생명나무에 따라 생명 공급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함으로써, 신성한 분배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한다—창 2:9, 고전 3:2, 6.
3. 온전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생명과 기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장비되고 갖추지는 길은 생명에 있어서 자라고 기능에 있어서 숙련되는 것이다—엡 4:11-16.

### II.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사역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 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엡 4:13.

- A.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 영의 하나, 곧 실재에서의 하나 안으로 태어났다. 이제 우리는 실행에서의 하나, 곧 실행적인 생활에서의 하나에 이르도록 계속 나아가야 한다—요 3:6, 엡 4:3, 13.
- B.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르다’라는 말은 우리가 실행적인 하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실재 안에 있는 하나는 시작이며, 실행적인 하나는 목적지이다.
- C. 실행적인 하나는 믿음에서의 하나이다—엡 4:13.
  - 1.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의 일과 같이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리킨다—딤후 1:19, 6:10, 12, 21, 유 3절.
  - 2. 교회의 특수성은 ‘믿음’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은 성경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과 구원과 교회에 관한 우리의 믿음들로 이루어진다—유 20절.
- D. 실행적인 하나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이다—엡 4:13.
  - 1.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은 우리의 체험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를 이해하는 것이다—마 16:16.
  - 2. 믿음에서의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취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에만, 우리는 믿음에서의 하나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요 20:31, 갈 1:15-16, 2:20, 4:4, 6, 고전 2:2.
- E. 우리가 실행적인 하나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음으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한다—엡 4:15.
- F.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 모두이다—엡 4:13.
  - 1.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는 것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한다—엡 4:13-15.
  - 2.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실지적인 하나를 위해서는 성숙이 필요하다.
  - 3.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은 분량이 있는 신장을 가진다—엡 1:23, 4:13.

**III.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사역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 A.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4장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밝혀 준다.
- B.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믿는 이들의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계시하는 세 개의 구절이 있다.
  - 1. 에베소서 4장 18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풍성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말해 준다.
  - 2. 에베소서 4장 21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주입하시기 위한 것이다.
    - a.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생활을 하

- 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다.
- b. 예수님의 일상생활에는 매우 실재적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 실재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진리로서 실재화되고 실행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었다.
3. 에베소서 4장 30절은 그분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신성한 요소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적시기 위한 성령의 도장 찍음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그 영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 C.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생각의 영, 곧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이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퍼져서 생각의 영이 되고, 이 영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 새로워진다—엡 4:23, 롬 12:2.
- D.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생활은 또한 용서하는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서로서로를 용서해야 한다—엡 4:32.
- E. 우리 모두는 그 사역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기에 합당하고 자격을 갖춘 생활을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엡 4:11-32.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분의 몸을 건축하도록 함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몸에게 주어진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전 구절에 나오는 많은 은사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한 사역을 가지는데, 그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유일한 사역이다(고후 4:1, 딤후 1:12).

문법 구조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은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과 동격이다. 이것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것임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그 사역의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과 목자 및 교사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한다. 12절의 ‘하게’는 ‘결과적으로 하게’, ‘목적으로 하게’ 혹은 ‘위하여 하게’를 의미한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절에 나오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역의 일로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건축의 일은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직접 성취되지 않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한 성도들에 의해 성취된다.

그 사역의 일은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과 온전하게 된 사람들 모두의 일이다. 몸의 건축은 사도들과 은사 있는 다른 이들의 일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 모든 성도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유일한 일은 주로 은사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책임이다. 앞선 사도들을 포함하는 은사 있는 사람들과 가장 작은 지체를 포함하는 모든 믿는 이들이 모두 함께 일하여 몸을 건축한다.

은사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은 신성한 분배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가 신약 사역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은사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생명나무에 따라 생명 공급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함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창 2:9, 고전 3:2, 6). 은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성도들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직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사도들은

교회들을 방문함으로써(행 15:36, 40-41, 20:20, 31), 교회들에게 편지를 씌으로써(골 4:16, 고전 1:2), 그들의 동역자들을 어떤 장소에 보내어 머물게 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함으로써(딤후 1:3-4, 3:15, 딤후 1:5)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신언자들은 성도들이 사람들 안으로 주님을 말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집회에서 말함으로 본을 세움으로써, 성도들이 매일 아침 부흥되고 매일 이기는 생활을 함으로 신언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도움으로써(행 13:1, 고전 14:31, 잠 4:18)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복음 전하는 이들은 성도들을 복음 전파의 영 안에서 불타오르도록 분발시킴으로써,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복음을 전하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성도들이 경륜적인 영의 능력으로 장비되도록 도움으로써,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본을 세움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딤후 4:5). 목자 및 교사들은 목양함으로써, 곧 어린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하며 성장하는 믿는 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행 11:25-26, 13:1). 이렇게 온전하게 한 결과로 우리는 모두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른다(엡 4:13, 비교 요 17:23). 이렇게 온전하게 한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과도에 요동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이다(엡 4:14).

온전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생명과 기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온전하게 되는 길은 생명에 있어서 자라고 기능에 있어서 숙련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온전하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완전하게 하다, 장비시키다, 갖추지게 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를 완전하게 하고, 장비시키고, 갖추지게 하는 것이다. 오직 생명의 성장에 의해서만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성숙하게 된 후에 완전하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미성년자라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먹임으로 온전하게 한다. 더 나아가 부모들은 자녀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하도록 훈련시킴으로써 자녀들을 장비시키고 갖추지게 한다.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을 먹이고 훈련시킴으로써 온전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성도들은 먹어야 하고, 합당한 기술을 가지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에게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자원으로 준비된 마음을 주소서. 저는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과 목자 및 교사들로부터 온전하게 함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생명에 있어서 영적이라면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물질적인 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들에서도 훈련이 필요하다. 영적인 일들에서 우리는 성숙, 곧 생명의 성장이 필요하고 또한 기술이 필요하다. 성숙은 성장에서 오고, 기술은 훈련에서 온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음식을 먹여야 하고,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모든 성도는 건축하는 지체들이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언급된 은사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지위에 있는 고관들이 아니다. 그보다 그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이들이다(엡 4:12). 성도들은 그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되고 장비되고 갖추어져야 한다. 온전하게 하는 것 혹은 장비시키는 것은 모두 생명이 성장하고 어떤 기술을 훈련받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은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과 목자 및 교사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모든 성도가 건축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건축된 지체들일 뿐 아니라 몸을 건축하는 지체들이어야 한다. 첫째,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과 목자 및 교사들이 성도들을 건축한다. 이것은 그들이 성도들을 건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건축하는 지체들이 된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결합되고’는 맞추어져 연결된다는 사상을 함축하고 있고, ‘짜입니다’는 교차하여 짜인다는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 몸은 공급하는 마디들과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을 통해 스스로 자란다. ‘각 마디’는 특별히 11절에 언급된 은사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 풍성한 공급’은 특별한 공급, 곧 그리스도의 공급인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각 지체’라는 표현은 몸의 각 지체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는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 발휘하는 각자의 분량이 있다. 몸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가이고, 이것은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건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약하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에 의해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모든 신성한 풍성을 해방하셨고, 승천을 통해 그분은 신성한 찬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받으셨다. 승천의 때로부터 그리스도는 정복된 원수들을 그분의 몸을 위한 은사들로 조성하는 일을 해 오셨다. 먼저, 그분은 이러한 정복된 포로들에게 오시어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점차적으로 그들을 그분 자신으로 채우고 적시신다. 결국 이전에 그분의 원수였던 이들이 변화되고 유용한 은사들로 조성되어 몸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 은사들은 다른 이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주입한다. 이런 식으로 몸의 지체들은 보양과 보살핌을 받는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룩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변화되어서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된다. 결과적으로 온몸이 공급하는 각 마디에 의해, 또한 각 지체의 분량에 따른 기능 발휘에 따라, 함께 견고하게 짜 맞춰지고 결합된다. 이것의 결과로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3420-3424쪽)

**은사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한 사역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건축하는 동일한 한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됨**

그리스도의 몸은 은사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한 사역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건축하는 동일한 한 일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된다(엡 4:7-16). 에베소서 4장 12절에 언급된 사역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언급한 사역이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구약에 유죄 판결의 사역이자 죽음의 사역인 한 사역, 곧 율법의 사역이 있다고 말한다(고후 3:7-9). 구약 시대에는 많은 제사장들과 신언자들과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율법의 한 사역에 참여했다. 이 율법의 사역은 죽음을 가져오는 유죄 판결의 사역이었다. 신약 시대에는 또 하나의 사역, 곧 은혜의 사역이 있다. 이 은혜의 사역은 그 영의 사역이고 의롭게 함으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의 사역이다(고후 3:8-9, 롬 5:17, 21).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세기 동안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공급한 모든 사람은 유일한 신약 사역의 일부인 다양한 사역들을 갖고 있었다. 한 몸은 한 사역, 곧 유일한 신약 사역에 의해 건축된다.

몸의 건축을 위해 머리이신 분은 몇몇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과 목자 및 교사들을 주셨다(엡 4:11-12). 그들의 일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12절). 그러므로 성도들 또한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온전하게 되어 사역의 일을 한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따르면 ‘사역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은 동격이다. 따라서 사역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은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동일한 한 사역을 갖고 있다. 몸은 한 사역에 의해 건축된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사도들의 사역과 다른 소위 사역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교파를 세우고 있다. 소위 어떤 사역은 장로교를 건축하고, 또 다른 사역은 침례교를 건축한다. 또 어떤 사역들은 감독교회를 건축하고 감리교를 건축한다. 기독교 안에는 유일한 한 사역이 아닌 유일한 한 사역 밖에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다. 이러한 사역들이 거듭해서 분열을 가져왔다.

내가 ‘한 사역’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 한 사역이 나의 사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사역이 한 사역의 일부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유일

한 신약 사역의 일부인 한 사역을 갖고 있다. 몇몇 자매들은 집회소를 청소하고자 하는 부담을 유기적으로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집회소를 청소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들의 봉사이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신약의 사역의 일부로서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머리가신 분은 은사 있는 모든 사람을 주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결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은사 있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기관을 발전시키고, 신성한 생명의 성장을 통해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장비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성도가 은사 있는 지체들과 동일하게 몸을 건축하는 하나의 일을 하게 된다.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어 사역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건축한다.

###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을 함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지를 보여 주는 또 다른 부분이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15절 이후부터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밝혀 준다. 바울은 헛된 생각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17-18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행한다면, 굳은 마음을 갖지 않고 어둠 안에 있지 않을 것이고 양심의 느낌을 주의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것이다(27절). 우리는 또한 진리,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를 따라 살아야 한다(21절). 하나님은 진리, 곧 실재이시다. 에베소서 4장은 또한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한다(22절). 여기서 ‘속이는 것’은 인격화되어 있다. 여기서 속이는 것은 속이는 자, 곧 사탄을 가리키는데, 그 사탄에게서 부패한 옛사람의 욕정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23절). 이렇게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었다. 이러한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산될 때 생각의 영이 된다. 바로 이러한 영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다.

침례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과 옛 생활 방식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사람을 입었다(24절, 롬 6:6, 4상, 골 2:11-12).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서 옳은 것이다. 한편 거룩함은 일반적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분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우리는 의와 거룩함의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이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며 자신을 은혜로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본을 세우셨다. 우리는 주님의 본에 따라 주님께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주님께 의해서 배운다. 우리는 몸의 건축을 위해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들의 누림과 공급으로 공급하는 생활이다(엡 4:29). 우리는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말만을 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말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누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실 수 있다(엡 4:30). 우리는 항상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 유쾌한 것이어야 한다. 도장 찍으시는 영은 삼일 하나님의 본질과 요소로 우리에게 계속 도장을 찍으신다. 종이에 도장을 찍을 때 종이는 먹의 본질뿐 아니라 도장의 모양과 형상을 받게 된다. 도장 찍으시는 영은 삼일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안에 가져오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생활은 또한 용서하는 생활이다. 몸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듯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잊어야 한다(엡 4:32하, 히 8:12).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옛사람 안에서 보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을 묘사해 준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될 수 있는 매우 많은 소망과 약속과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은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합당한 생활을 하는 온전하게 된 수많은 성도들의 한 사역에 의해 건축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축된 한 몸의 실재 안으로 이끄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몸, 4장)*